"아픈 발목이 날 강하게 만들었다"

▲유광우

'발목부상 투혼' 삼성화재 유광우

매주 신경영양제·진통제 맞으며 강행군
세트당 11.8개…세트 부문 독보적 1위
"동료들 덕분…후반기엔 나만 잘하면 돼"

"아픈 발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삼성화재 세터 유광우(29)는 매주 발목에 신경영양제와 진통제를 맞는다. 그의 발목은 프로 데뷔 첫 해(2007~2008시즌 1라운드 2순위 삼성화재 지명)부터 정상이 아니었다. 대학팀과 대표팀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서 무리가 왔고, 이를 참고 뛰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선수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위기였다. 하지만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그를 재활시켰다. 2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2010~2011시즌 주전 세터였던 최태웅이 현대캐피탈로 이적하면서 기회를 잡았고, 3시즌째 삼성화재를 든든히 지키며 한번의 정규리그 우승과 두 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일궈냈다. 올 시즌 역시 팀을 리그 선두로 이끌고 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잊을 뿐

"심할 때는 잠을 못자는 경우도 있다. 괜찮을 때도 지속적으로 발목이 저리거나 찔리는 듯한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그에겐 선수생활을 지속하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족쇄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웠다. 경기 중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처음엔 '발목 때문에…'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발목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이 상태에서도 경기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다"고 했다.

고통의 깊이만큼 성숙해진 마인드는 그를 성장시켰다. 이번 시즌 그는 세트 부문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세트당 11.779개.

●정규리그 및 챔프전 우승

유광우는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하다고 했다. 강민웅(세터)이 상무에서 제대해 가세하면서 한 시즌을 혼자 다 끌고 가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 도움이 됐다. 그는 "내가 흔들릴 때 잘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큰 보탬이 된다. 또 스스로 더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아울러 생겼다"고 했다.

팀 공격수들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안정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다. 그는 "전반기에 흔들린 적이 많았는데 공격수들이 볼을 잘 받아줬다. 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공격수들의 몫으로 돌렸다. 아울러 "서브와 수비도 지난해와 비교해 더욱 탄탄해졌다. 레오도 잘 해주고 있지만 특히 (박)철우가 더 살아나고 있어서 나만 잘 하면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듯하다"며 겸손해 했다.

그의 올 시즌 목표는 당연히 챔피언결정전 우승이다.

"이번 시즌 내가 나아진 점이 있다면 동료들 덕분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 시즌 대한항공과 챔피언결정전 3차전(1-3패)에서는 너무 서두르다가 다치기도 하고 결국 경기를 망쳤다. 하지만 올해는 차분하고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가 반드시 우승하겠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삼성화재 세터 유광우(맨 오른쪽)는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신경영양제와 진통제를 맞는 투혼을 발휘하며 팀의 리그 선두를 이끌고 있다. 스포츠동아DB

2연승 GS칼텍스, 2위 굳히기

베띠-한송이 맹활약…흥국생명에 3-0 완승

GS칼텍스가 흥국생명을 누르고 2연승을 달렸다.

GS칼텍스는 30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2-2013시즌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4라운드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0(25-21, 25-16, 25-18)으로 이겼다. GS칼텍스는 13승 6패(승점 37)로 3위 도로공사(32점), 4위 현대건설(29점)과 격차를 벌리며 2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GS칼텍스는 베띠(15득점)와 한송이(13득점), 이소영(11득점)이 공수에서 골고루 활약했다. 특히 베띠와 한송이는 각각 53.8%, 52.6%로 50%가 넘는 공격성공률을 기록하며 이름값을 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이소영도 블로킹 2개와 서브에이스 1개 등 10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1세트는 접전이었다. 양 팀이 계속 점수를 주고받으며 19-19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동점 상황에서 흥국생명 휘트니가 연달아 범실을 범했고, GS칼텍스가 25-21로 1세트를 따냈다. GS칼텍스는 2세트 초반 강 서브로 흥국생명의 리시브를 흔들며 크게 앞서갔다. GS칼텍스는 3세트에서도 중반부터 줄곧 10점차 이상 리드를 지키며 흐름을 가져왔고 낙승했다. 흥국생명은 이날 22개의 범실을 기록하며 자멸한 데다 20점을 올린 휘트니 말고는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없다는 게 뼈아팠다.

한편 남자부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이 LIG손해보험을 3-2로 눌렀다. 대한항공은 10승9패로 승점 32가 되며 LIG손해보험(승점 31)을 끌어내리고 3위를 탈환했다. LIG손해보험은 4위로 처졌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호주와 악연' 태극낭자들 우승 다짐

내달 1일 '볼빅-RACV 레이디스' 명예회복 별려

한국 여자프로골퍼들이 호주에서 2013시즌을 위한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신지애(25·미래에셋)와 유소연(23), 양수진(22·정관장) 등은 2월1일부터 사흘간 호주 퀸즐랜드 주 골드코스트의 로열 파인스 골프&리조트에서 열리는 볼빅-RACV 레이디스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한국선수들과 악연이다. 2006년 당시 아마추어 양희영(22·KB금융그룹)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단 한명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신지애(2007년)와 신현주(2008년), 유소연(2009년, 2012년), 이보미(2010년), 김하늘(2012년)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인 이번 대회는 중간 점검과 전초전 성격을 띤다. 지난 해 12월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간 선수들은 훈련 성과를 점검할 수 있고, LPGA 선수들은 다음 달 14일 개막전을 앞두고 마지막 샷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험무대다.

올해부터 이 대회는 국내 기업인 볼빅에서 후원한다. 그러나 대회 규모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먼저 총상금은 지난해 50만 호주달러(약 5억6000만원)에서 올해 25만 호주달러(약 2억8000만원)로 대폭 삭감됐다. 상금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대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기 방식도 지난해 4라운드에서 올해는 3라운드로 바뀌었다. 카리 웹(호주)를 비롯해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타이거 우즈의 조카인 샤이엔 우즈(미국) 등이 한국 선수들과 우승을 다툴 전망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편집 | 심승수 기자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KBL 남자프로농구 〈3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35	28	7	0.800	-	1승
2	모비스	35	24	11	0.686	4	1패
3	전자랜드	35	21	14	0.600	7	1패
4	인삼공사	35	19	16	0.543	9	2승
5	오리온스	35	16	19	0.457	12	1승
5	KT	35	16	19	0.457	12	1패
5	동부	35	16	19	0.457	12	4승
8	LG	36	16	20	0.444	12.5	1승
9	삼성	35	13	22	0.371	15	6패
10	KCC	36	7	29	0.194	21.5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선수	팀	득점	평균 도움 선수	팀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리바운드
① 존슨	KT	19.1	① 전태풍	오리온스	6.2	① 윌리엄스	오리온스	11.9
② 포웰	전자랜드	18.9	② 박지현	동부	5.3	② 벤슨	모비스	10.3
③ 헤인즈	SK	18.6	③ 김태술	인삼공사	5.0	③ 라틀리프	모비스	9.6
④ 파틸로	인삼공사	18.4	④ 이현민	전자랜드	4.5	④ 타운스	삼성	9.3
⑤ 윌리엄스	오리온스	18.1	⑤ 함지훈	모비스	4.5	⑤ 헤인즈	SK	8.5

•경기결과

KCC (7승29패)	73	38, 35	22-15, 16-27, 14-24, 21-21	87	오리온스 (16승19패)
전자랜드 (21승14패)	77	30, 47	11-18, 19-24, 24-18, 23-26	86	LG (16승20패)

KOVO 여자 프로배구 〈30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IBK기업은행	19	17	2	50	1628	1381	5승
2	GS칼텍스	19	13	6	37	1522	1475	2승
3	도로공사	19	11	8	32	1636	1561	1패
4	현대건설	19	10	9	29	1569	1517	2승
5	흥국생명	19	5	14	18	1441	1575	3패
6	인삼공사	19	1	18	5	1333	1620	16패

1010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순위	선수	팀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니콜	도로공사	549	①	양효진	현대건설	0.98
②	휘트니	흥국생명	538	②	알레시아	IBK기업은행	0.67
③	알레시아	IBK기업은행	515	③	김희진	IBK기업은행	0.59
④	야나	현대건설	375	④	정대영	GS칼텍스	0.54
⑤	베띠	GS칼텍스	316	⑤	한송이	GS칼텍스	0.50

•경기결과

GS칼텍스	3	25-21, 25-16, 25-18	0	흥국생명

KOVO 남자 프로배구 〈30일〉

•경기결과

LIG손해보험	2	18-25, 21-25, 31-29, 25-23, 9-15	3	대한항공

NBA 〈30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1	뉴욕	27	15	1	시카고	27	17	1	마이애미	28	13
2	브루클린	27	18	2	인디애나	26	19	2	애틀랜타	25	19
3	보스턴	21	23	3	밀워키	24	19	3	올랜도	14	30
4	필라델피아	18	26	4	디트로이트	17	28	4	워싱턴	11	32
5	토론토	16	29	5	클리블랜드	13	33	5	샬럿	11	33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오클라호마	34	11	1	LAC	33	13	1	샌안토니오	36	11
2	덴버	28	18	2	골든스테이트	28	17	2	멤피스	29	15
3	유타	24	21	3	LAL	20	25	3	휴스턴	25	22
4	포틀랜드	23	22	4	새크라멘토	17	29	4	댈러스	19	26
5	미네소타	17	24	5	피닉스	15	30	5	뉴올리언즈	15	30

•부문별 순위

동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앤서니(뉴욕)	1028	29.4	① 론도(보스턴)	420	11.1	① 노아(시카고)	486	11.3
② 제임스(마이애미)	1089	26.6	② 홀리데이(필라델피아)	359	9	② 부세비치(올랜도)	493	11.2
③ 어빙(클리블랜드)	838	23.9	③ 윌리엄스(브루클린)	345	7.8	③ 챈들러(뉴욕)	450	10.7
④ 웨이드(마이애미)	765	20.7	④ 칼데론(토론토)	333	7.4	④ 호포드(애틀랜타)	400	9.8
⑤ 홀리데이(필라델피아)	774	19.4	⑤ 넬슨(올랜도)	257	7.3	⑤ 부저(시카고)	425	9.7

서부 콘퍼런스

득점	총	평균	도움	총	평균	리바운드	총	평균
① 듀란트(오클라호마)	1333	29.6	① 폴(LAC)	378	9.7	① 하워드(LAL)	496	11.8
② 브라이언트(LAL)	1277	28.4	② 바스케스(뉴올리언즈)	419	9.3	② 랜돌프(멤피스)	486	11.6
③ 하든(휴스턴)	1195	26	③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	377	8.4	③ 아식(휴스턴)	525	11.2
④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	1013	22.5	④ 파커(샌안토니오)	337	7.5	④ 리(골든스테이트)	478	10.9
⑤ 커리(골든스테이트)	880	21	⑤ 로슨(덴버)	306	6.8	④ 힉슨(포틀랜드)	479	10.9

•경기결과

골든스테이트	108 - 95	클리블랜드	밀워키	117 - 90	디트로이트
포틀랜드	106 - 104	댈러스	LAL	111 - 106	뉴올리언즈

NHL 〈30일〉

•경기결과

보스턴	2 - 1 (승부타)	뉴저지	미네소타	3 - 2	콜럼버스
몬트리올	4 - 3	위니펙	오타와	3 - 2	워싱턴
탬파베이	5 - 2	플로리다	디트로이트	4 - 1	댈러스
새너제이	3 - 2 (승부타)	애너하임	뉴욕R	2 - 1	필라델피아
뉴욕I	4 - 1	피츠버그	토론토	4 - 3 (연장)	버펄로

경기종합 〈30일〉

배구 ●2013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남여 중고배구대회(전라남도 영광)

•남자 고등부 결승전=남성고 3-0 순천제일고 •남자 고등부 최종 순위=① 남성고, ② 순천제일고, ③ 영생고, ③ 인하사대부고

오늘의 프로농구

• 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31일〉

SK 〈잠실학생〉 동부	KT 〈부산사직〉 모비스
오후7시, SBS-ESPN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오늘의 여자농구

• KDB금융그룹 2012-2013 여자프로농구 〈31일〉

하나외환 〈부천실내〉	삼성생명
오후5시, SBS-ESPN	

오늘의 프로배구

• 2012-2013 NH농협 V-리그 〈남자부〉 〈31일〉

러시앤캐시 〈아산이순신〉	현대캐피탈
오후7시, KBSN스포츠	

• 2012-2013 NH농협 V-리그 〈여자부〉 〈31일〉

IBK기업은행 〈화성종합〉	도로공사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경기예고 〈31일〉

태권도 ●제 8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제주 한라체육관, 오전9시30분)